

아프니까 청년이다.

흔히들 청년 시기는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왕성하며 질병 등의 문제를 고민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결핵, 우울증, B형 간염 등의 질병이 확산되고 있다는 보도를 심심찮게 확인할 수 있으며 전체 사망자 중 자살에 의한 사망 비율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더욱이 바쁘고 빈곤한 일상 속에 편의점에서 끼니를 때우는 등 부실한 식생활의 실태가 확인되며 건강관리의 위험 신호가 드러나고 있다. 막연히 청년들은 건강할 것이라는 통념에 의문을 제기할 시점이 되었다.

자료 | 연도별 20대 청년 자살 사망자 | 전체 사망자 추이 변화 (통계청)
 청년층 먹거리 실태조사 (2011년 서울시 청년명예부시장팀)
 2012 서울시 20대 질병분류별 진료실인원 현황 (2012 건강보험 DB)

청년들의 사망원인

전체 사망: 3,479명

자살에 의한 사망: 1,64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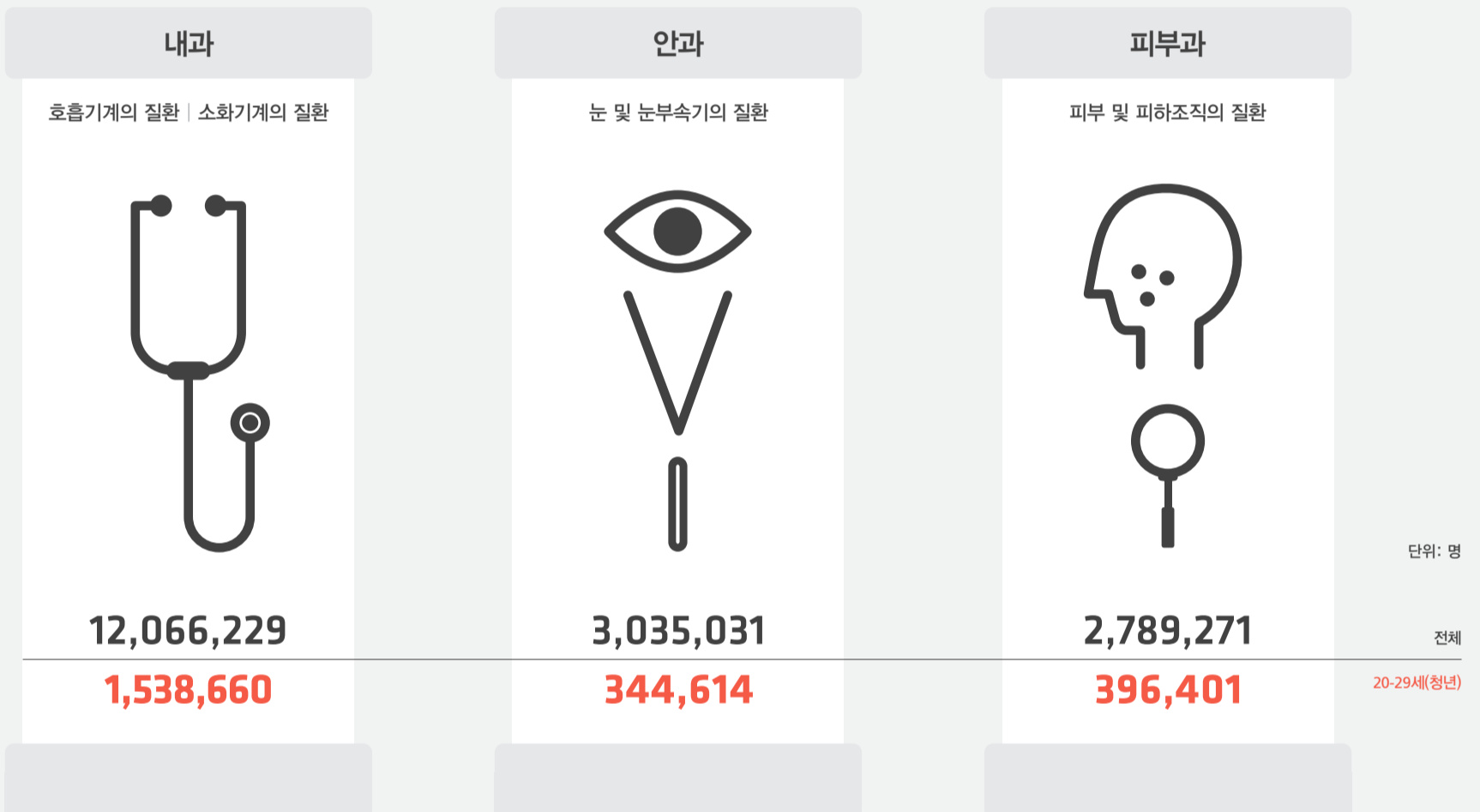
47%

2011년 기준 20대 사망자 수는 3,476명이다. 이 중 자살에 의한 사망은 1,640명으로 47%에 달한다. 의학의 발달로 청년층 사망자 수가 확연히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살에 의한 사망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무엇이 청년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것일까.



청년들의 질병

청년층의 진료실 이용현황을 분석한 결과 호흡기, 소화기계 질환으로 인한 내과 내원 빈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 다음으로는 눈 및 눈부속기의 질환에 의한 안과, 피부과 순이었다. 당연한 결과이겠지만 청년층의 경우 다른 연령대에 비해 진료실 이용 빈도가 낮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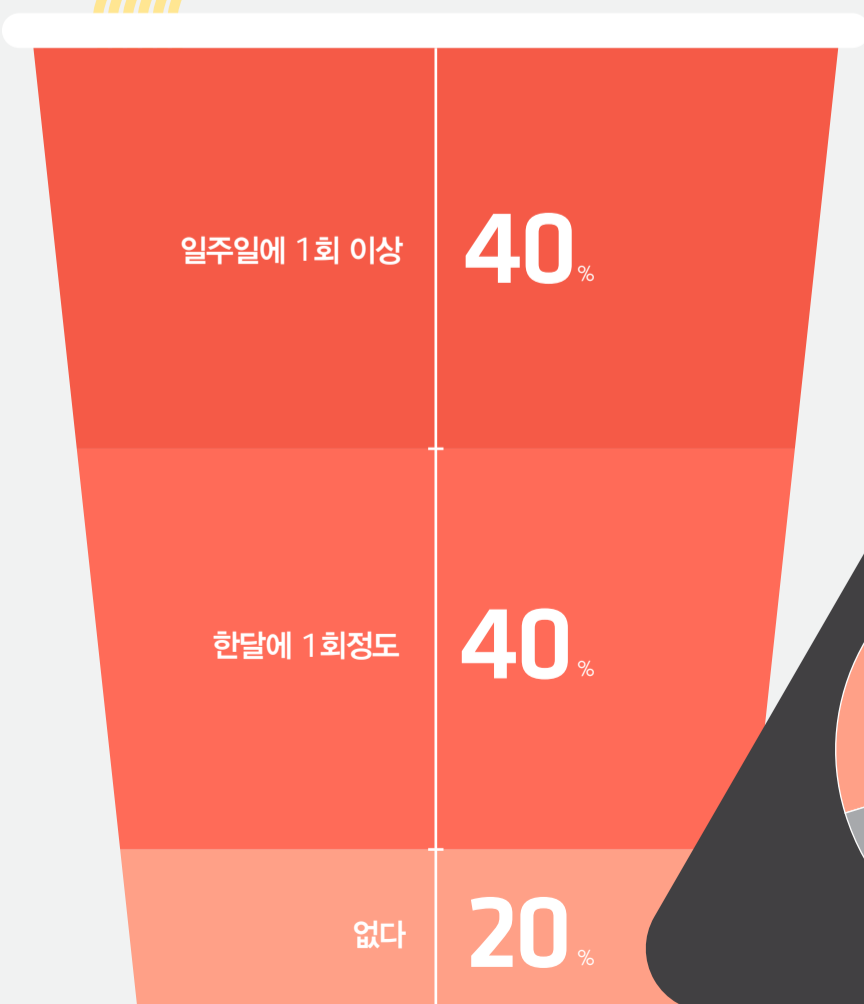


청년들의 식생활

단위: %

청년층의 80%는 편의점에서 끼니를 때우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1주일에 1회 이상 이용하는 비율도 60%에 달했다. 이들이 편의점에서 끼니를 때우는 이유는 가격과 시간의 문제가 주요했다. 상대적으로 질병에 덜 취약한 청년층이지만 젊은 시절부터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노년층까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서울의 청년들은 바쁜 일상과 빈곤에 쫓기며 편의점에서 끼니를 때우고 있었다.

청년들이 편의점에서 끼니를 해결하는 빈도 수



- 가격이 저렴해서 46.9%
- 밥 먹을 시간이 부족해서 29.6%
- 편의점이 가깝게 있어서 14.1%
- 같이 밥 먹을 사람이 없어서 5.8%
- 기타 1.4%
- 맛있어서 1.1%
- 무응답 1.1%

청년들이 편의점에서 끼니를 해결하는 이유